영어어문교육 제7권 1호 2001년 여름

허사와 EPP

최 숙 희
(한국과학기술원)

Choe, Sook-Hee. (2001). Expletives and EPP.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7(1), 161-17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xpletives and EPP in Chomsky's(1998, 1999) Minimalism. Generalized EPP is suggested in Chomsky(1998): every functional head may have an uninterpretable selectional feature for its specifier position to be filled by a proper element. After briefly examining the properties of EPP and ϕ- features in Chomsky (1998, 1999), *there*-constructions are examined in terms of Agree. EPP features are satisfied by *there*-Merge or Move of an associate NP. Case feature is regarded as a reflex of ϕ-feature. Hence, it is suggested that *there* is a pure expletive with a [person] feature. It has shown that the uninterpretable [person] feature of *there* is not erased by the nonfinite $T(T_{def})$ in terms of Agree in the Raising and ECM constructions. Again the uninterpretable [person] feature of *there* Agrees with finite T and moves to SPEC-T to satisfy the EPP feature, and finally the uninterpretable [person] feature of *there* is erased. PRT(=-*en*) is also regarded as a defective probe with a [number] feature and a [gender] feature.

Ⅰ. 머리말

본 논문에서는 Chomsky(1998, 1999)의 최소주의 체계 속에서 일치(Agree)를 통해 허사 구문을 분석하면서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보고자 한다. Chomsky(1982)가 모든 절은 주어를 지녀야 한다는 필요조건인 EPP를 제안한 이후, EPP는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SPEC-Agrs로의 외현적 인상을 일으키고 주격 명사구의 논항 이동을 나타낸다. EPP는 투사원리에서 확대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투사원리와 EPP 사이에는 관련성이 최소한으로 간접적이고 특히 EPP를 만족시키는 허사를 생각해 보면 D-S에서 유지될 수조차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EPP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EPP는 지난 20년 동안 문법의

중심적인 특성으로 간주되어왔다. EPP의 역할이 주어진 이상 EPP는 인간언어에 관련된 보편적인 무엇인가를 반영한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된다.

이에 허사와 관련하여 EPP의 특성 및 관계를 Chomsky(1998, 1999)의 최소이론에서 설명해 보려고 한다. Chomsky(1995)의 초기 최소주의에서는 자질이론을 제안하며 유인과 점검을 통해 강자질을 지닌 핵이 외현적 통사론에서 그 자질이 점검된다. 그러나 Chomsky(1998)에서는 이동을 통한 자질 점검을 일치로 대체하면서 자질이동을 반박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허사구문에서 일치 운용을 통해서 EPP를 조사해 본다.

Chomsky(1998)에 따르면, 일반화 EPP에 대한 정의는 모든 기능핵이 적당한 요소에 의해서 채워질 지정어(SPEC) 자리에 대해 비해석성 자질을 지닌다는 것이다. 비해석성 자질은 대응하는 해석성 자질과의 일치를 통해 그 값을 부여받고 통사부에서 삭제된다. 따라서 최소이론에서 일치를 독립된 운용으로 도입하여 일치의 조건을 살펴보고 허사 구문을 중심으로 EPP를 조사해 본다. 먼저 최소주의에서 EPP 자질과 ϕ-자질을 살펴보고, 통사적 운용을 통해 EPP의 비해석성 자질과 일치의 관계를 조사해 본다. 그리고 허사구문과 EPP 자질을 논하면서 허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EPP 자질 만족을 위한 이동에 대해 조사하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제시해 본다.

II. 최소주의, EPP 자질, ϕ-자질

Chomsky(1993, 1995) 이후 최소주의에서는 언어란 필수출력조건에 대한 최적의 해결이라고 간주하고, 언어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필수출력조건만 만족되면 저절로 만족된다고 본다. 최소주의는 자질 중심의 문법이론으로 세 가지 자질인 음운자질, 의미자질, 형식자질 중에서 형식자질이 연산체계(C_{HL})의 모든 문법적 운용의 요인이 된다.

Chomsky(1998, 1999)에서는 핵심적 형식자질인 굴절자질은 ϕ-자질로서 논항의 유일한 일치자질로 설정된다. 이러한 형식자질은 해석성 자질과 비해석성 자질로 구분되는데 Chomsky(1998)는 인간언어에서 불필요한 비해석성 자질[1]이 나타나는 것은 접합점 필수출력조건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언어에는 비해석성 자질과 그 자질 삭제를 위해 일치와 같은 외견상 비완벽성이 존재하고 있다. 비해석성 자질은 일치를 통해 해석성 자질로부터 그 값을 부여받고 협의 통사론(Narrow Syntax)에

1) 모든 형식자질은 추상적 자질이지만 음성적/형태론적으로 한번도 나타나지 않는 자질은 설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Chomsky(1998)는 T에 주격 자질이나 범주 자질인 D-자질은 설정하지 않고 T에 비해석성 ϕ-자질은 설정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 T에 주격 자질이나 D-자질은 음성적/형태론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최소한 3인칭 단수의 ϕ-자질은 음성적/형태론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삭제된다.

최소주의에서 구구조 형성은 어휘핵인 실사핵과 기능핵의 선택자질을 만족시켜 이루어진다고 본다. 보충어는 어휘핵의 선택자질을 만족시키고 지정어(SPEC)는 실사핵의 선택자질 또는 기능핵의 EPP 자질을 만족시켜 형성된다. 실사핵에는 의미역 선택자질이 있지만 기능핵에는 비의미역 선택자질과 EPP 자질이 있다. 기능핵의 비의미역 선택자질은 실사핵처럼 순수 집합병합을 유도할 수 있고, 비해석성 자질은 일치를 유도할 수 있으며, EPP 자질은 비해석성 자질과 함께 이동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연산체계의 기본 운용은 자질 만족을 위한 일치와 병합이다. Chomsky(1998)에 따르면, 기능핵의 탐색자(Probe) 자질이 일치와 병합을 유도하여 *there*-병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이동으로 이어지고, 실사핵/기능핵의 선택자질은 순수 병합을 유도하게 된다.

허사를 포함하는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1) a. There is [$_{PP}$ a man in the room]].
b. A man is [$_{PP}$ t_i in the room]].

Chomsky(1998)에서는 이동(Move)은 '유인(일치) + 확인(Identify) + 병합(Merge)'의 세 요소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병합이 이동보다 경제적이라는 병합우선 경제성 원리에 따라 단순병합이 이동보다 우선한다.[2] 배번집합에 허사 *there*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속절 Spec-TP로의 *a man*의 이동과 허사 *there*-병합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단순병합이 우선한다. 따라서 (1a)에서는 *there*-병합이 나타나고 (1b)에서는 배번집합에 *a man*이 종속절 Spec-TP로 이동하게 된다.

두 문장 (1a, b)의 도출은 T의 EPP 자질과 ϕ-자질을 만족시키는 문법적 운용을 거치므로 비슷한 도출적 복잡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 (1a)에서는 *there*-병합으로 T의 EPP자질이 만족되고 *a man*의 ϕ-자질은 일치를 통해서 T의 ϕ-자질과 만족되고, (1b)에서는 *a man*이 Spec-TP로 이동함으로써 T의 EPP자질과 ϕ-자질이 만족된다.

---

2) Chomsky(1998)는 논항은 의미역 위치에만 순수 병합이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다음 문장의 문법성 차이를 설명해 준다.

(i) a. *John$_i$ believes [$_{TP}$ t_i to be [$_{PP}$ a man in the room]].
b. John believes [$_{TP}$ a man$_i$ to be [$_{PP}$ t_i in the room]].

(ia)에서는 종속절에서 *a man*의 이동 대신에 *John*이 병합되었음에도 비문이고, (ib)는 정반대 현상이지만 정문이다. 따라서 병합우선 경제성 원리는 두 문장의 문법성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제안에 의하면, (ia)에서는 논항 *John*이 비의미역 위치인 종속절 Spec-T 자리에 순수 병합되었으므로 비문법적이고, (ib)에서는 종속절 Spec-T 자리에 *a man*이 이동하여 삽입되므로 문법적이다.

그러나 이동은 일치 + 확인 + 병합의 과정을 거치므로 탐색자 T와 목표어 *a man* 사이에 일치가 일어나고, Spec-TP로 이동할 요소 *a man*을 확인하고 난 후 병합하게 되는 차이가 있다.

결국, EPP 자질은 허사의 병합으로 만족되거나 T와 일치를 이루는 관련논항의 이동과 병합으로 만족된다. 반면에 Koizumi(1993), Lasnik(1995) 등은 목적어 전이를 주장하며, 목적어도 주어처럼 모든 언어에서 AGRo의 SPEC 자리로 외현적으로 이동한다고 본다. AGRo(=*v*)도 AGRs(=T)처럼 항상 EPP 자질을 내포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주장은 Chomsky(1998)의 일치이론과는 거리가 있다.

최소주의에서는 명사구의 유일한 굴절 자질은 ϕ-자질이라고 간주한다. ϕ-자질은 실사핵 N, A에도 기능핵 T, C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격 자질은 기능핵 T, C에 굴절 형태소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N의 ϕ-자질은 해석성이므로 목표어 자질과 일치 후에도 삭제되지 않아 연속-순환적으로 일치 운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N의 격 자질은 비해석성이므로 대응하는 자질과 일치될 때 삭제되고 만다.

명사구에 있어서 ϕ-자질이 유일한 자질로 간주될 수 있는 형태론적/통사론적 증거가 있다. 영어에는 부정사 T에 최소한 [인칭] 자질이 있다는 통사적 증거가 있다.[3]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자.

(3) a. ?There is me.
b. *There am me.
c. I believe [$_{TP}$ there to be a man in the room].
d. There$_i$ seems [$_{TP}$ t$_i$ to be a man in the room].

(3a, b)에서 보충어 *me*가 T와 수(number)의 일치는 보이지만 인칭의 일치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T가 *there*와 3인칭 일치를 한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3c)에서 *there*는 병합과 동시에 부정사 T(=*to*)의 [인칭] 자질과 일치하여 그 자질이 삭제되므로 영어에서 부정사 T는 불완전 T(defective T: T_{def})로서 최소한의 ϕ-자질인 [인칭] 자질을 내포한다고 본다. (3d)에서 *there*는 병합과 동시에 부정사 T의 [인칭] 자질과 일치하고 나서, 주절 T의 ϕ-자질 중에서 [인칭] 자질과 일치하여 삭제된다. 이와 같이 기능핵의 ϕ-자질은 비해석성이므로, 탐색자 ϕ-자질은 목표어 ϕ-자질과 일치 후 자살적 이기성 원리에 의해서 삭제된다.

또한 최소주의에서 ϕ-자질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ϕ-자질은 인칭, 수, 성의 세 자질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ϕ-자질은 인칭, 수, 성, 격 자질로 구성된다고 일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한다. George and Kornfilt(1981)는 구조격 자질이 T의 정형성(finiteness)이나 V의 타동성(transitivity)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3) 포르투칼어에서는 부정사 T에 비해석성 ϕ-자질이 형태/음운론적으로 나타난다.

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4) 격 자질은 ϕ-자질의 일부분이다.

격 자질은 분포상 ϕ-자질이 나타날 수 있는 곳에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Chomsky(1998)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격은 별개의 자질이 아니라 ϕ-자질에 수반되는 특성으로 간주한다. 주어의 격 값은 T의 정형성에 기인하고 T의 정형성은 T의 ϕ-자질과 관련되어 T의 ϕ-자질이 삭제될 때 주어의 격도 동반 삭제된다고 본다. 즉, 격 자질은 ϕ-자질의 일치 운용에 무임승차될 뿐이다. 부정사 T(=to)에 ϕ-자질의 [인칭] 자질만이 나타날 수 있듯이, 일반화 ϕ-자질도 그 자질 중에서 일부분만이 하나의 핵에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T는 두 개의 탐색자, 즉 EPP 자질과 ϕ-자질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순서로 만족되는지 살펴보자.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중유인 조건(Heaviness Condition)으로 해결될 수 있다.

(5) 중유인 조건
한 핵의 두 자질들 중에서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자질의 만족이 다른 자질의 만족보다 우선한다

T의 경우에서는 EPP 자질이 ϕ-자질보다 먼저 만족된다. 일반적으로 EPP 자질이 만족되려면 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동은 일치+확인+병합을 내포하지만, 일치는 ϕ-자질의 만족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EPP 자질의 만족은 ϕ-자질의 만족을 내포하게 된다. 개념적으로 ϕ-자질이 만족되고 나서 EPP 자질이 만족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두 자질이 동시에 만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III. EPP 자질과 통사적 운용

1. 비해석성 자질

앞에서 언급했듯이, 언어에는 비해석성 자질과 그 자질 삭제를 위해 일치와 같은 외견상 비완벽성이 존재하고 있다. 비해석성 자질은 일치를 통해 해석성 자질로부터 그 값을 부여받고 삭제된다. 또 다른 외견상 비완벽성으로 간주되는 것은 이동 현상이다. 이 경우에는 EPP 자질이 관여되며 비해석성 자질로서 삭제되어야 한다. EPP 자질은 다른 비해석성 자질과 같이 값이 부여되지 않은 형식자질이므로 그 값은 탐색자에 대응하는 해석성 자질인 목표어와 일치를 통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EPP 자질 삭제에

는 허사 *there*의 병합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EPP 자질에 값이 부여되기보다는 병합과 함께 EPP 자질이 삭제된다. EPP 자질 삭제에는 비해석성 자질에 의해 목표어가 지정되어 일치를 유발시키고, EPP 자질 삭제를 위한 이동에는 일치가 필수적으로 유발된다.

그러면 비해석성 선택자질로서의 EPP 특성들을 살펴보자. Chomsky (1996)는 강자질을 제거하며 EPP 자질은 강 D-자질에 의해서 필적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_{CP}$ Whom$_i$ C+did $[_{TP}$ John$_j$ T $[_{vP}$ t$_i$′ $[_{vP}$ t$_j$ *v* $[_{VP}$ see t$_i$]]]]]?

Chomsky(1995)는 (6)에서 T와 C는 *John*과 *whom*를 인상하기 위해 강 D-자질들을 가지나, *v*는 *who*의 목적격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약 D-자질을 가진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T의 EPP 자질은 언어 보편적 특성이고 강/약 매개변인에 의해서 바뀔 수 없는 것이다. 또한 Chomsky(1996, 1998)는 핵 이동을 위한 강자질은 PF에서 접사화(affixation) 특성에 의해서 대체된다고 주장한다. '강'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핵은 보충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해석성 선택자질을 가지는 것처럼 지정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비해석성 선택자질을 가진다고 간주한다. Chomsky(1998)에 의하면 강자질이 삭제된 이상, 기능핵의 SPEC 자리는 기능핵 T, C, *v*의 선택자질들을 통해서 채워져야 한다. 기능핵의 보충어 자리들은 기능핵의 해석성 선택자질들을 통해서 순수 병합에 의해서 채워지고, 기능핵의 SPEC 자리들은 기능핵의 비해석성 선택자질들을 통해서 보조 병합에 의해서 채워진다. 논항들의 이동과 허사들과 같은 비논항들의 병합은 단지 비의미역 자리, 즉 기능핵의 SPEC 자리에서만 가능하다. 연속-순환적 인상은 기능핵의 SPEC 자리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능핵의 SPEC 자리들과 핵들만이 다음에 표시되는 국면 침투불가 조건(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에 의해서 포착되는 바로 상위의 순환이나 국면에 가시적이다.

(7) 국면 침투불가 조건 (Chomsky 1998)
핵 H를 지닌 국면 α에서, H의 영역(=보충어)은 α밖에서 운용들에 접근가능하지 않다. (국면=*v*P와 CP)

언어의 기본 운용인 일치와 병합에서, 일치는 형식자질들에 기인하고 병합은 선택자질들에 기인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동은 일치, 확인 및 보조 병합으로 이루어지는데, EPP 선택자질이 이동을 위한 보조 병합을 유발시키므로 EPP 자질은 이동의 본질적인 계기인 것이다. (1a)에서 살펴 보았듯이, 의미역 선택 자질들이 순수 병합에 의해서 만족되는 것처럼 EPP 비의미역 선택자질은 허사 *there*의 순수 병합에 의해서 만족된다.

결국, 기능핵들의 EPP 자질은 단지 SPEC 자리를 위한 선택자질이고, T의 EPP 선택

자질은 비해석성이다. 국면의 핵인 C와 *v*의 EPP 자질은 수의적이지만 T의 EPP 자질은 의무적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T의 EPP 자질이 유발시키는 주술 정보구조는 모든 문장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C나 *v*의 EPP 자질이 유도하는 주제-설명/초점 관계, 한정성/명시성 등의 정보구조는 모든 구문(CP, *v*P)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4)]

2. 일치와 비해석성

Chomsky(1998, 1999)에서는 자질 유인/점검이론이 일치 이론으로 대치된다. 자질은 언어적 특성으로는 형태/음운적으로 확인될 수 있지만, 이동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독립적 개체로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Chomsky(1998)는 일치의 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조건을 제안한다.

(8) a. 영역 조건: 탐색자와 일치하는 목표어는 그 탐색자를 내포하는 명칭의 보충어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
b. 국부성 조건: 서로 일치하는 탐색자와 목표어 사이에 또다른 가능한 탐색자나 목표어가 끼어 있어서는 안 된다.
c. 부합 조건: 서로 일치하는 탐색자와 목표어의 두 부합자질은 유일하고 동일해야 한다.
d. 활성화 조건: 일치하는 탐색자와 목표어는 각각 비해석성 자질을 내포하여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

일치 운용을 통해 서로 일치하는 탐색자와 목표어의 비해석성 자질은 값이 주어지면 삭제된다.[5)] 일치 조건에 의하여 다음의 인상구문을 살펴보자.

(9) A man$_i$ seems [$_{TP}$ t$_i$ to be [$_{PP}$ t$_i$ in the room]].

(9)에서 목표어 *a man*의 ϕ-자질은 해석성이므로 값이 명시되어 있지만 격 자질은 비해석성이므로 값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목표어 *a man*과 탐색자 주절 T가

---

4) Chomsky(1996, 1998)에 의하면, 비해석성 EPP 자질들은 정보구조에서 효과를 포착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킨다. 즉, T의 EPP 자질은 주어-술어 관계의 정보구조, C의 EPP 자질은 화제-논평, 초점-전제 관계 등의 정보구조, 그리고 v의 EPP 자질은 목적어전이 언어들에서 한정성 등의 정보구조를 유발시킨다.

5) 비해석성 자질의 값이 일치를 통하여 부여된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예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비해석성 격 자질은 T의 정형성에 의해 주격, v의 타동성에 의해 대격, 통제절 T의 비정형성에 의해 영격 등이 예측되며 T의 비해석성 ϕ-자질은 관련 논항의 해석성 ϕ-자질에 의해 인칭・수・성의 값이 예측된다.

일치를 이루는데, 부합자질은 ϕ-자질이 되고 *a man*의 비해석성 격 자질과 T의 비해석성 ϕ-자질이 활성화된다. T의 비해석성 ϕ-자질은 *a man*과의 일치를 통해 값이 주어진다. 이와 같이 *a man*이 주절 T와 일치함으로써 부합조건과 활성화 조건이 만족된다. 또한 PP의 SPEC 자리에 기저 생성된 *a man*은 주절 T의 보충어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영역 조건도 만족된다. 국부성 조건을 생각해 보면, *a man*이 주절 T와 일치하여 주절 SPEC-T로 직접 이동하기 전에 부정사 T(=*to*)와 일치/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사 T(=*to*)도 *a man*과 일치를 이루는 탐색자로 보아야 한다.[6]

이와 같이 부정사 T에 최소한의 [인칭] 자질이 있다고 간주하고 *a man*이 부정사 T와 일치를 이루고 EPP 자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SPEC 자리에 들렀다가 이동한다고 보아야 한다. 탐색자인 불완전 T_{def}(=*to*)는 목표어 *a man*의 비해석성 격 자질을 삭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은 비해석성 격 자질은 *a man*을 활성화하여 주절 T와 또다시 일치를 이루고 이동하게 한다.

Chomsky(1998)는 논항 일치를 위해 탐색자의 비해석성 ϕ-자질과 목표어의 비해석성 격 자질은 논리형태 이전에 동시에 삭제되어야 하며 그 두가지 삭제는 하나의 운용이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격은 별개의 자질이 아니라 ϕ-자질에 수반되는 특성으로 간주된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10) There_i seems [$_{TP}$ t_i to be likely [$_{TP}$ t_i to be a man in the room]].

최하위절 Spec-TP에 순수 병합된 *there*는 비해석성 불완전 ϕ-자질인 [인칭] 자질이 T_{def}에게 삭제되지 않아, 중간절 T_{def}와 다시 일치를 이루고 EPP 자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Spec-TP로 이동하고 다시 *there*의 비해석성 불완전 ϕ-자질이 T_{def}에게 삭제되지 않아 다시 주절 완전 T와 일치를 이루고 EPP 자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Spec-TP로 이동하여 *there*의 비해석성 불완전 ϕ-자질이 주절 완전 T에게 삭제되어 *there*의 연속-순환적 논항 이동이 끝나게 된다.

그러나 주절 T의 완전 ϕ-자질은 *there*의 불완전 ϕ-자질에게 삭제되지 않아 목표어 *a man*의 완전 ϕ-자질과 일치를 이루고 주절 T의 비해석성 완전 ϕ-자질이 삭제되는 동시에 *a man*의 비해석성 격 자질이 삭제된다. 주절 T의 EPP 자질이 *there* 이동으로 만족되어 삭제되었기 때문에 *a man*이 주절 Spec-T로 이동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

6) 부정사 T(=to)는 논항 이동을 위한 일치의 탐색자로 간주된다.

(i) John_i seems to Mary_j [t'_i to appear to himself_i/*herself_j [t_i to be intelligent]].

위의 문장에서 John의 중간 흔적 t′은 *himself*의 선행사로 필요하므로 *John*이 부정사 T와 일치를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 부정사 T_{def}(=*to*)는 불완전 ϕ-자질인 최소한 [인칭] 자질을 지니고 있어서 이동하는 논항과 일치를 이루게 된다.

완전 자질만이 대응하는 비해석성 자질에게 값을 부여하고 비해석성 자질도 삭제한다. 그래서 Chomsky(1998, 1999)에서는 일치를 통해 비해석성 불완전 자질인 탐색자만이 일치 후 자살적 이기성에 의하여 자동 삭제된다고 본다. 따라서 T의 비해석성 불완전 ϕ-자질은 일치 후 자살적 이기성에 의해 자동 삭제된다.[7)]

한편, (10)과 같은 이중 일치의 경우 그 적용 순서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문법 운용의 경제성 원리에 따라 주절 T와 더 가까이 있는 *there*가 먼저 부합하여 일치되어야 한다. 주절 T가 순수 병합되는 순간 그 주절 T의 완전 ϕ-자질이 *there*의 불완전 ϕ-자질과 먼저 일치를 하고 나서 *a man*의 완전 ϕ-자질과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there*의 불완전 ϕ-자질은 가능한 목표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Chomsky(1999)의 극대화 원리(Maximization Principle)로 설명되고 있다. 극대화 원리는 다음 (12)와 같이 문장들의 문법성 차이를 설명해 준다.

(11) 일치를 위한 부합의 효과는 극대화되어야 한다.
(12) a. There$_i$ is expected [t$_i$ to arrive a man].
b. *A man$_i$ is expected [there to arrive t$_i$].

(12a)에서는 *there*가 주절 T와 일치하고 T의 EPP 자질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절 Spec-T 자리로 이동한다. (12b)에서는 주절 T가 *there*와 일치하고 *a man*이 주절 T의 EPP 자질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절 Spec-T 자리로 이동한다. (12a)에서는 주절 T와 *there*의 부합으로 *there*의 [인칭] 자질도 주절 T의 EPP 자질도 삭제되지만 (12b)에서는 주절 T와 *there*의 부합으로 *there*의 [인칭] 자질만 삭제되고 주절 T의 EPP 자질은 주절 T와 *a man*의 부합으로 삭제된다. 이와 같이 (12a)에서는 주절 T와 *there*의 부합 효과가 극대화되었으나 (13b)에서는 부합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여 비문임이 설명된다.

---

7) 양(2000)이 지적하듯이, 최하위절 T의 비해석성 불완전 ϕ-자질의 경우는 자살적이기성에 의하여 자동 삭제된다는 것이 불확실하다. 최하위절 Spec-TP에 순수 병합된 *there*는 그 불완전 T와의 일치를 위해 병합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두 가지 해결안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탐색자인 최하위절 T(=to)의 비해 석성 불완전 ϕ-자질이 목표어 *a man*의 완전 ϕ-자질과 일치하여 삭제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탐색자가 목표어로 주절 T의 완전 ϕ-자질과 일치하여 삭제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 해결은 다음과 같은 국면 조건에 입각하여 가능하게 된다.

(i) 모든 문법적 운용의 효과는 그 다음 국면(CP, v*P)의 도출 단계에서 확인·평가된다.

최하위절 T(=to)의 비해석성 불완전 ϕ-자질의 삭제에 대하여 이런 설명을 수용한다면, 중간절 T(=to)의 비해석성 불완전 ϕ-자질의 삭제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을 수용할 수 있어 자살적 이기성과 같은 추가 설정이 불필요해진다.

Ⅳ. 허사구문와 EPP 자질[8)]

Chomsky(1995, 1998)의 최소주의에서는 허사 *there*와 관련논항에 각각 독립적인 격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논항에만 격이 작용한다고 간주한다.[9)] 허사구문과 관련된 기능범주와 어휘항목을 나타내보면, 허사 *there*는 [인칭] 자질, T는 비해석성 EPP 자질, 비해석성 ϕ-자질 그리고 해석성 격 자질을 지닌다. 또한 관련논항은 해석성 ϕ-자질 그리고 비해석성 격 자질을 지닌다. 또한 격 자질이 독립적인 자질인지 또는 다른 자질들의 부수적인 현상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격 자질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ϕ-자질이 부합되어 삭제될 때 무임승차로 삭제된다고 가정한다. 탐색자가 목표어와 부합되어 비해석성 자질인 ϕ-자질을 삭제하게 되고, 이때 관련논항의 해석성 ϕ-자질이 T의 비해석성 자질을 삭제하는데 사용된 대가로 자신의 비해석성 격 자질도 함께 삭제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이것은 자질부합에서 자질을 삭제할 때 탐색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어도 이익을 보게 되어 자살적 이기성으로 통한다.

우리는 허사 *there*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다른 가정을 할 수 있다.

(13) a. 허사 *there*에는 격을 포함한 명사의 자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b. 허사 *there*에는 범주자질만 있고 형식자질이 전혀 없다.

(13a)에서는 탐색자 T와 *v*가 DP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허사와 일치하게 되고 T의 EPP 자질도 허사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다. (13b)에서는 허사가 형식자질을 지니지 않

---

8) Boecks(2000)는 Lasnik(1995), Martin(1999)와 같은 견해를 밝히며, EPP 자질은 격과 잉여적이며 EPP는 축소할 수 있고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외현적 논항이동은 격 점검에서 기인한다고 보며, EPP를 제거함으로써 격 제거가 명사구들이 전위된 자리에 나타나는 이론적 근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는 국면에서 도출의 분리에 기초하는 견해를 밝히면서 IP가 국면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9) Lasnik(1995, 1999), 문(1998)에서는 Chomsky와는 다른 방향으로 제안한다. Lasnik (1995, 1999)은 *there*가 [D] 자질 뿐만 아니라 격 자질도 가진다고 제안한다. 다음 문장들을 비교해 보자.

(i) a. *it seems [there to be a man in the room]
b. *There is likely [there to be a man in the room]
c. We consider [there to be a man in the room]

Chomsky(1995) 분석을 따라 *there*가 격 자질이 없기 때문에 (ia)와 (ib)가 모두 정문으로 예견되는데 비문이고 (ic)는 *there*가 *consider*의 격점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문으로 예견되는데 정문으로 잘못 예견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Lasnik은 이 문장들을 올바르게 예견하기 위해서 *there*가 격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ia)와 (ib)에서는 주절동사가 S′-제거를 하지 못하므로 *there*가 격 자질 점검을 받지 못해 비문이 되고 예외격 동사는 *there*의 격을 점검함으로써 정문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서 일치가 허사를 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T의 EPP 자질을 허사가 충족시키는 문제는 이동이 일치에 부수적인 운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EPP 자질을 s-선택의 문제로서 통사적 운용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there*가 ϕ-자질과 격 자질이 없는 순수한 허사로 최소한의 [인칭] 자질을 가진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이(2001)에서 지적하듯이, 여기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허사구문에서 탐색자 T, *v*와 목표어 *a man* 사이에 있는 허사 *there*가 일치에 있어서는 불완전 간섭제약[10]을 일으키지 않으나, T의 EPP 자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동에서는 이 제약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다음에서 (14a)와 같은 인상구문과 (14b)와 같은 예외격 구문을 살펴보자.

(14) a. There seems to be a man in the room.
b. I expect there to be a man in the room.
(15) a. [there T-be a man in the room]
b. [a man T-be t in the room]

(14a)에서 불완전 T의 EPP 자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15a)처럼 허사 there를 순수 병합하거나 (15b)처럼 DP *a man*을 인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4a)에서는 *there*가 SPEC-T로 인상하지만 (14b)와 같은 예외격 구문에서는 *I* 때문에 이동하지 못한다. 완전 ϕ-자질을 지닌 탐색자만이 부합하는 목표어의 비해석성 자질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비해석성 [인칭] 자질만 지니는 불완전 T는 (15a)에서 *a man*의 격 자질을 삭제할 수 없고, 목표어 a man은 완전 ϕ-자질이므로 불완전 T의 [인칭] 자질은 삭제될 수 있다.

(15a)에 각각 인상술어 *seem*과 예외격 동사 *expect*와 병합시킨 다음, 각각 기능범주 T, *v*와 병합시키면 (16)이 생성된다.

(16) a. T-seem [$_{TP}$ there T-be a man in the room]
b. *v*-expect [$_{TP}$ there T-be a man in the room]

---

10) 불완전 간섭 제약으로 문장의 비문법성을 포착할 수 있는 다음의 초인상 구문(Superraising)을 살펴보자.

(i) *It$_i$ seems that t$_i$ was told John that he had to leave.

일치 이론에 의하면, it은 종속절 Spec-TP 자리에서 종속절 T와의 일치를 통해 비해석성 격 자질이 삭제되었으므로 다시 주절 T와 일치를 이루어 주절 T의 EPP 자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동할 수 없으므로 비문이다. it는 종속절 T와의 일치를 통해서 비해석성 격 자질이 삭제되었으므로 주절 T와 다시 일치를 이룰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it는 가능한 목표어로 간주되어 국부성 조건을 위반하여 비문이 된다. 이와 같이 일치를 이룰 자격을 상실한 불완전 목표어 it가 완전목표어 John의 일치를 간섭하는 것이 불완전 간섭 제약이다(양(2000: 97)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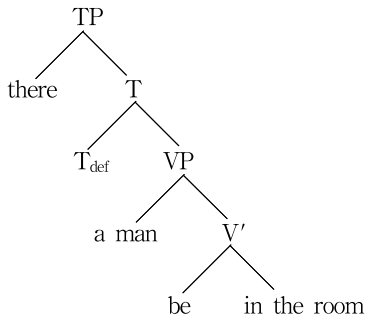
(15a)에서처럼 T와 *v*에 의해 비활성적 [인칭] 자질이 삭제된 허사는 불완전 간섭제약을 일으키지 않아 허사 *there*가 T, *v*와 관련논항 사이의 일치에는 비가시적이다. 반면 (16a)에서 T의 EPP 자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상에는 허사 *there*가 가시적이 되어 인상되어야 한다. 이것은 일치하는 목표어와 인상되는 통사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Chomsky (1998)에서는 핵의 EPP 자질은 그것의 SPEC 자리에 무엇이 병합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핵과 일치하는 통사체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14a)의 도출과정에서 T가 일치하는 통사체 *a man*과 T의 SPEC으로 이동하여 병합될 통사체인 허사 *there*는 다르다. 이(2001)는 일치의 목표어가 되려면 탐색자와 부합하는 자질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EPP 자질을 충족시키는 이동의 목표어는 음성적 내용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11)]

또 다른 문제는 (16)에서 탐색자인 T와 *v*가 SPEC-T_{def}에 있는 *there* 대신에 멀리 떨어진 관련논항을 목표어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Chomsky(1998)는 허사와 관련논항이 최소영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7) 동일한 최소영역[12)]의 통사항목은 탐색자와 등거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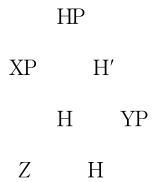
(15a)의 구조를 나타내는 (18)에서는 *there*와 *a man*은 동일한 핵의 투사범주에 속한 통사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될 수 없는 것 같다.

(18)



11) 음성적 내용이 없는 PRO는 이동의 목표어가 될 수 없다.

12) 최소영역이란 핵의 투사범주에 직접 포함되어 있는 통사항목의 집합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최소영역 R={Z, XP ,YP}이다.



이제 예외격 구문에서 어휘항목의 비해석성 자질들이 삭제되어 합치된 문장을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19) a. We [$_{vP}$ [$_{VP}$ consider [$_{TP}$ there to be a man in the room]]]
b. We [$_{vP}$ [$_{VP}$ consider [$_{TP}$ a man to be in the room]]]

(19a)의 경우 배번집합에 *there*가 있으므로 SPEC-TP에 병합되어 TP를 형성하고 탐색자인 T의 비해석성 EPP 자질은 *there*의 [인칭] 자질과 일치하여 삭제된다. 탐색자인 주절 T의 비해석성 ϕ-자질은 목표어인 관련논항의 해석성 ϕ-자질과 일치함으로써 삭제된다. 그러나 부정사 T는 불완전 비해석성 EPP 자질만을 지니므로 탐색자 T의 일치는 끝나지만, 관련논항의 비해석성 격 자질이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따라서 관련논항과 가장 가까운 탐색자인 경동사 *v*는 목표어인 관련논항과 일치하여 *v*의 비해석성 ϕ-자질이 삭제되고 관련논항의 비해석성 격 자질은 자살적 이기성에 의해서 삭제된다. 결국 Lasnik이 주장하는 것처럼 *there*가 예외격 동사에게서 격을 받는다고 가정하지 않고도 설명이 가능하다. (19b)의 경우는 배번집합에 *there*가 없으므로 관련논항이 이동하여 도출되는데, T의 EPP 자질을 삭제하기 위해서 관련논항이 SPEC-TP로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질점검은 (19a)와 같다.

다음 예외격 동사 구문의 비문법성을 살펴보자.

(20) *We consider there a man in the room.

Lasnik(1999a)의 이론에서는 (20)에서 *there*가 예외격 동사로부터 격을 받지만 관련논항은 격을 받을 수가 없어서 비문이다. 그러나 Chomsky 이론에 따르면, 예외격 동사와 병합되기 전에 [*there a man in the room*] 구는 병합이 불가능하여 파탄된다. 그 이유는 국면단위로 문법성을 점검할 때 순수 병합은 의미역과 관련해서 논항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허사구문에서 *there*가 격 자질을 가지지 않고 [인칭] 자질만을 가진 순수 허사라는 것이 일치 운용에 의해 설명된다. 또한 격 자질은 독립적인 자질이 아니라 무임승차로 부수적인 자질로 점검되기만 하는 자질로 분석된다. *there*가 논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가시성조건을 위반하지만, *there*가 논항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에 따른 가시성조건으로 설명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6a)과 같은 구조에서 EPP 자질의 만족을 위해서 인상되는 성분은 허사 *there*인 반면, 탐색자 T가 일치하는 성분은 *a man*이 된다. 인상구문과 예외격 구문에서 나타나는 일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21) a. [T be likely [there to arrive a man]]

b. [we [$_{v*P}$ t *v** expect [there to arrive a man]]]

(21)에서 탐색자 T와 *v**[13]는 각각 목표어인 *there*와 *a man*과 일치하지만,목표어 *a man*은 또한 T_{def}(=to)와 일치하므로 탐색자와 목표어 모두 이중 일치를 일으킨다. 탐색자 T와 *v**는 *there*의 유일한 비해석성 [인칭] 자질을 삭제하지만, T와 *v**의 비해석성 자질은 일치가 일어난 후에도 그대로 남게 된다. 따라서 T와 *v**의 비해석성 자질을 삭제하려면 극대화 원리에 따라 완전 ϕ-집합을 가진 목표어는 부합을 극대화하는 *a man*이 된다. 이와 같이, 허사 *there*는 T나 *v**가 *a man*과 일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불완전 간섭효과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Chomsky(1999)의 극대화 원리는 간섭이 모든 자질의 원거리 부합을 차단하지 않는 한 간섭효과는 무효화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탐색자 T 또는 *v**와 *a man*의 부합을 차단하려면 불완전 ϕ-자질이 아니라 모든 자질을 지닌 완전 성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Chomsky(1999)에서는 과거분사 어미 *-en*도 목적어와 일치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또한 불완전 탐색자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과거분사 어미 *-en*을 PRT라는 기능핵으로 간주하고 그 기능핵은 불완전 ϕ-자질을 지닌 불완전 탐색자가 된다. 불완전 탐색자 PRT를 지닌 허사 구문을 살펴보자.

(22) $There_i$ seems [$_{IP}$ t_i to have been [$_{PRTP}$ PRT [$_{VP}$ catch several fish]]].

(22)의 도출과정에서 음운부문에서 동사 *catch*가 PRT(=*-en*)로 핵이동하여 *caught*가 되지만 연산체계에서는 PRT이 독립해서 계속 작용한다. PRT의 불완전 ϕ-자질은 [수]와 [성] 자질만 지니고 [인칭] 자질은 없다고 본다.[14] PRT의 불완전 ϕ-자질이 목적어 *fish*의 완전 ϕ-자질과 일치를 이루어 PRT의 불완전 ϕ-자질은 삭제되지만 목적어 *fish*의 격 자질은 삭제되지 않으므로 목적어 *fish*의 완전 ϕ-자질이 활성화되어 다시 주절 T의 완전 ϕ-자질과 일치를 이룬다. 목적어 *fish*의 완전 ϕ-자질과 주절 T의 완전 ϕ-자질이 일치를 이룰 때, 극대화 원리에 따라 PRT의 불완전 ϕ-자질은 목적어 *fish*와 주절 T 사이에 완전 ϕ-자질이 부합・일치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비해석성 자질의 삭제는 주절 CP 국면에 가서 그 효과가 나타나므로,[15] 주절 T의 완전 ϕ-자질은 또다시 *there*의 불완전 ϕ-자질인 [인칭] 자질과 일치할 수 있다. 마침내 *there*의 불완전 [인칭] 자질이 삭제되고 *there*는 주절 T의 EPP 자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절 T의 SPEC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PRT(=-en)의 격 자질 삭제를 위한 일치 운용이 남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13) 경동사 v가 완전 논항구조를 가질 경우를 표시한다.

14) PRT은 형용사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칭] 자질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15) 모든 문법적 운용의 효과는 그 다음 국면의 도출 단계에서 확인・평가된다.

PRT에 [수] 자질, [성] 자질, 그리고 [격] 자질이 나타나는데, PRT은 비해석성 [수] 자질과 [성] 자질의 삭제를 위해서는 탐색자의 기능을 하지만 비해석성 [격] 자질의 삭제를 위해서는 목표어의 기능을 하게 된다. (22) 도출에서 PRT은 탐색자로서 *fish*와 일치를 이루어 비해석성 [수] 자질과 [성] 자질을 삭제 받고, 목표어로서 또다시 주절 T와 일치를 이루어 비해석성 [격] 자질을 삭제 받는다.

PRT은 탐색자로서 목적어 *fish*와 일치를 통해 불완전 ϕ-자질이 모두 삭제되었는데 다시 목표어로서 주절 T의 완전 ϕ-자질과 부합・일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PRT이 목적어 *fish*와 일치하여 삭제되는 PRT의 비해석성 [수] 자질과 [성] 자질은 그 다음 국면인 주절 CP에 이르러서 그 효과가 확인・평가되므로 주절 CP에 이르기까지는 그 삭제가 실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PRT은 탐색자로서 목적어 *fish*와 일치한 후 다시 목표어로서 주절 T의 완전 ϕ-자질과 부합・일치할 수 있게 되고 PRT의 비해석성 격 자질도 삭제된다. 또한 PRT의 불완전 ϕ-자질도 다음 국면인 주절 CP에 이르러서 삭제된다. 결국 주절 T의 완전 ϕ-자질은 탐색자로서 3중 일치를 하게 된다. 즉, 주절 T의 완전 ϕ-자질은 허사 *there*의 불완전 ϕ-자질([인칭]), PRT의 불완전 ϕ-자질([수]자질과 [성]자질), 그리고 목적어 *fish*의 완전 ϕ-자질과 일치한다.

또한 목적어 *fish*와 PRT(=-en)의 격 자질 값이 대격으로 결정되는 구문을 살펴보자.

(23) I expect [$_{TP}$ there to have been [$_{PRTP}$ PRT [$_{VP}$ catch several fish]]].

(23)의 도출과정도 (22)와 거의 동일하다. 음운부문에서 동사 *catch*가 PRT(=-en)로 핵이동하여 *caught*가 되지만 연산체계에서는 PRT의 불완전 ϕ-자질이 목적어 *fish*의 완전 ϕ-자질과 일치를 이루고, 마찬가지로 목적어 *fish*의 격 자질은 삭제를 위해서 *fish*의 완전 ϕ-자질을 계속 활성화하여 주절 *v*의 완전 ϕ-자질과 일치를 이룬다. 주절 *v*의 비해석성 완전 ϕ-자질과 목적어 *fish*의 비해석성 격 자질도 그 값이 주어지는 동시에 삭제된다.

여기서도 극대화 원리에 따라 PRT의 불완전 ϕ-자질은 목적어 *fish*와 주절 *v* 사이에 완전 ϕ-자질이 부합・일치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또한 비해석성 자질의 삭제는 주절 CP의 국면에 가서 효과가 나타나므로, 주절 *v*의 완전 ϕ-자질은 다시 *there*의 불완전 [인칭] 자질과 일치할 수 있다. 결국 PRT은 탐색자로서 *fish*와 일치를 이루어 비해석성 [수] 자질과 [성] 자질을 삭제받고, 목표어로서 다시 주절 *v*와 일치를 이루어 비해석성 [격] 자질을 삭제 받아야 한다.

여기서도 PRT은 탐색자로서 fish와 일치를 통해 불완전 ϕ-자질이 모두 삭제되었는데 다시 목표어로서 주절 *v*의 완전 ϕ-자질과 부합・일치할 수 있는 것은 삭제되는 *v*의 비해석성 [수] 자질과 [성] 자질은 다음 국면인 주절 *v*P에 이르러 효과가 평가되므로 주절 *v*P에 이르기까지는 그 삭제가 실행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주절 *v*의 완전 φ-자질은 탐색자로서 3중 일치를 하게 된다. 주절 *v*의 완전 φ-자질은 허사 *there*의 불완전 φ-자질([인칭]), PRT의 불완전 φ-자질([수] 자질과 [성] 자질), 그리고 목적어 *fish*의 완전 φ-자질과 일치한다. 결국 주절 *v*의 타동성 자질에 의해 목적어 *fish*의 비해석성 격 자질과 PRT의 비해석성 격 자질의 값이 대격으로 결정된다. 즉 목적어 *fish*와 PRT 사이의 φ-자질 일치는 직접 일치를 통해, 그리고 격 자질 일치는 주절 *v*를 통한 간접 일치로 설명된다.

Ⅴ. 맺는말

Chomsky(1998, 1999)의 최소주의에 의하여 허사와 EPP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Chomsky(1982)가 EPP를 처음 제안한 이후 EPP는 지난 20년동안 문법의 중심적 특성으로 간주되어왔다. Chomsky(1998)의 일반화 EPP는 모든 기능핵은 그 SPEC 자리가 적절한 요소에 의해서 채워질 비해석성 선택자질을 지녀야 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일치 운용을 통하여 비해석성 자질들을 살펴하면서 EPP 자질들을 분석해 보았다.

최소주의에서 논항의 유일한 일치자질로 φ-자질을 조사하였다. Chomsky(1998)는 T에 주격 자질이나 범주 자질인 D-자질은 설정하지 않고 T에 비해석성 φ-자질을 설정한다. 왜냐하면 최소한 3인칭 단수의 φ-자질은 음성적, 형태론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격 자질은 굴절 형태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DP의 구조격은 탐색자의 해석성 자질에 의해 결정되어 부여되며, 탐색자의 비해석성 φ-자질과 목표어의 비해석성 격 자질이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격은 별개의 자질이 아니라 φ-자질에 수반되는 특성으로 간주한다.

또한 허사 구문에서 인상구문과 예외격 구문의 부정사 T를 살펴보았다. 탐색자인 부정사 T는 불완전 T(T_{def})로서 [인칭] 자질만을 지니며 목표어는 허사 *there*로 지정되는데, 허사는 비해석성 φ-집합이므로 비해석성 격자질을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there*는 φ-자질과 격 자질이 없는 최소한의 [인칭] 자질을 지닌 순수한 허사로 간주된다. 그리고 EPP는 비논항 이동을 포함하는 이동 및 허사의 병합까지 관장함으로써 격 자질과는 별개의 자질로 존재한다. 또한 허사구문에서 과거분사 어미 *-en*도 불완전 φ-자질을 지닌 불완전 탐색자로 인정하여 분석하였다. PRT의 불완전 φ-자질은 [수]와 [성] 자질만 지니고 [인칭] 자질이 없다고 간주된다.

결국 일반화 EPP는 모든 기능핵의 SPEC 자리를 채우기 위한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으로, EPP 자질은 이동의 본질적인 계기를 제공한다. 격은 예측가능하므로 잉여적이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언어의 이동에는 특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언어가 필수출력조건에 대한 최적의 해결이라고 간주하는 최소주의에서 EPP를 제거하려는 여러 시도는 일반화를 위한 이상적인 시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펴 본 경험적

증거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Chomsky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허사구문의 EPP에서 이동이 나타나는 근거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허사구문에 대한 연구는 언어학뿐만 아니라 영어교육에서도 중요시되고 널리 반영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허사와 EPP와의 새로운 해석 정립이 영어교육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문귀선 (1998). 허사구문과 EPP. *'98 여름 연구회 특강자료모음집*, 한국언어학회.

박순혁 (1999). EPP 자질과 비해석성. *생성문법연구 9*(1). 한국문화사.

양동휘 (2000). 최소주의 통사론. 원고.

이홍배 (2001). *최소주의 통사론 강의*. 한신문화사.

최숙희 (2001). 최소주의와 EPP 재해석. *언어연구 17*(1).

Boecks, C. (2000). EPP eliminated. ms. University of Connecticut.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e & S.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Cambridge, MIT Press.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IT Press.

Chomsky, N. (1998). Minimalist inquires: The framework.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5.

Chomsky, N. (1999). Derivation by phas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5.

Kim, S-H. (1999). On the generalized EPP.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9*(1). Hankuk Publishing Co.

Lasnik, H. (1995). Case and expletives revisited: On greed and other human failings. *Linguistic Inquiry 26*.

Lasnik, H. (1999a). On feature strength: Three minimalist approaches to overt movement. *Linguistic Inquiry 30*.

Lasnik, H. (1999b). *Minimalist analysis*. Blackwell Publishers.

Lasnik, H. (2000). A note on the EPP. ms. University of Connecticut.

Martin, R. (1999). Case,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and minimalism. In S. Epstein & N. Hornstein (Eds.) *Working minimalism*. Cambridge: MIT Press.

Uriagereka, J. (1999). Multiple spell-out. In S. Epstein & N. Hornstein (Eds.) *Working minimalism*. Cambridge: MIT Press.

최 숙 희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305-701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373-1
Tel: (042) 869-4614
Fax: (042) 869-8730
Email: shchoe@cais.kaist.ac.kr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une, 2001